

# 24개월 이하 영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 - 양육행동의 하위영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

이 주 연(전남대 조교수)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관련 변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때 영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내용에 따라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부모됨의 초기단계에 있는 어머니들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어머니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행동 척도는 Parental Style Questionnaire(Bornstein et al., 1996)로 여기에는 자녀의 행동이나 요구에 대한 어머니의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기초로 한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대인관계적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양육행동 영역, 자녀에게 모방관찰의 기회와 사물에 대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물체지향적 양육행동 영역, 그리고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 예절을 가르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제한적 양육행동 영역의 3가지 하위영역이 포함된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정의 월수입, 자녀의 성, 자녀의 연령, 자녀수,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하위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영향력 변인을 분석한 결과, 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체지향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변인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으로 제한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학력 변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변인의 경우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덜 긍정적인 혹은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식을 부모들에게 교육하거나 이를 낮출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모든 양육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자녀의 요구나 욕구에 대한 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과 같은 사회관계적 양육행동은 개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에게 인지적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는 양육행동이나 규칙과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훈육적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 조절의 효과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물체지향적 양육행동과 제한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적절한 양육행동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양육행동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부모에게 긍정적 양육행동 함양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내용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